

經營戰略으로서의 特許情報活動

<日本> 소니 株式會社

特許部 次長 MATSUHAR AOSAMU

1. 概要

同社は創業初期부터 몇가지 特許事件을 經驗한 적도 있고 經營者層의 特許에 對한 관심을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그같은 特許管理에 對한 여러가지 理念된 듯하다.

이와 같은 狀況에서 特許管理活動도 예로부터 行해지고 있었으나 그 후 몇차례의 飛躍과 曲折을 겪고 現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여러가지 歷史的 背景이 現在의 특허관리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否定할 수 없다.

여기서 먼저 同社의 特許 情報活動의 概要를 살펴 보기로 한다.

1) 現在 同社의 特許情報活動은 本社 特許部를 中心으로 施行되고 있으며 中央集中方式이라 하겠다. 즉, 特許情報은 거의 特許部에 蒐集整理, 加工되어 特許部로부터 필요한 部署에 配布되고 있다.

그리고 特許資料의 配布뿐만 아니라 權利情報로서의 側面으로부터의 調查活動의 大部分을 特許部가 擔當하고 있다. 따라서 特許部員은 事業部의 動向을 수시 파악하고 수집되는 特許情報과 對比해서 分析, 檢討, 評價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밖에도 異議申請이라든가 無効審判의 證據資料調查도 特許部에서 맡을 일이다.

이러한 事情으로 미루어 特許情報活動 특히 그 實態面에 있어서 特許部의 負擔은 무겁다. 또한 現狀으로서의 技處情報로서의 活用도 하거니와 결과적으로는 權利情報로서의 活用に 偏重해 있

음을 인정치 않을 수 없다.

2) 特許資料의 蒐集, 加工, 保管 등에 對해서는 他社와 別다른 바 없다고 보나 굳이 特徵을 든다면 特許카드의 活用이라 할 것이다. 제아무리 巧妙히 꾸며진 資料도 蓄積이 안되면 그 效果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 特許카드는 日本의 特許, 實用新案公告, 公開, 美國의 特許, 西獨의 特許에 對해서 과거 약 24年間, 件數로는 약 400萬건 축적되어 있다.

앞으로 말할 나위 없겠고 과거부터 現제에 이르기까지 이 特許카드는 同社의 特許調査에 至大한 貢獻을 해 왔다.

3) 經營陳에 對해서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濃縮된 特許情報을 提供하고 經營上 判斷의 한가지 要素가 되고 있다. 그러나 定期的으로 情報 提供하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當然한 것으로는 最高經營陣에 對한 情報提供으로서의 그 客觀성과 그 內容의 評價, 解釋의 正確性등에 細心한 努力을 기울이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

2. 特許情報의 蒐集과 保管

이미 言及했듯이 一部の 例外를 제외하고 特許資料의 대부분은 本社 特許部에서 集中 購入되고 있다.

여기 定規적으로 蒐集하고 있는 主要資料를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特許·實用新案 公開公報, 公告公報 그 一次資料, 二次資料(業務 관련분야에 限함), 全分野에 걸친 公報의 마이크로필름(番號順).

美國—오피셜 가제트, 特別한 技處分野의 明

細書, 全分野의 明細書의 마이크로필름(番號順).

기타—西獨, 英國, 프랑스, 네덜란드, 캐나다, 오스트레리아特許抄錄誌, PCT抄錄誌, EPC抄錄誌, WPI抄錄誌.

그런데 컴퓨터檢索의 온라인端末機로서는 1979年 4월에 “PATOUS” 第1號機를 導入한 것을 비롯하여 Derwent社의 On-line Search-Service의 端末을 設置하고 있는 것 말고도 技術情報센터에 導入하고 있다. “DIALOG” “ORBIT” “JOIS”를 利用하고 있다. 이밖에 遠隔地에서는 別途 “PATOLIS” 端末機를 設置하고 있다.

이들 資料의 配布流通에 대해서는 後述하겠거니와 그에 앞서 蓄積保管에 관해 言及키로 한다.

먼저 日本의 特許, 實用新案 公告公報에 대해서는 IPC(옛 것은 JPC)에 따라 區分, 製本해서 1次資料로 保管하고 있다. 그밖에 特定技術, 特定出願人에 관해서 1次資料를 파일해 두고 있다.

그런데 日本의 公開公報는 一部の 例外를 제외하고 保管場所의 問題도 있고 原則으로 破棄치 않을 수 없는 狀況이다. 그래서 公開公報의 調査에 있어서는 特許 카드와 마이크로필름으로

이것을 補充하고 있다. 그리고 製本된 分類別公告公報도 스페이스 關係로 옛 것부터 順次로 마이크로필름화하고 있다.

主要 外國것에 대해서는 特許技術에 대해 1次資料를 파일함과 동시에 蒐集된 抄錄誌를 製本해서 保管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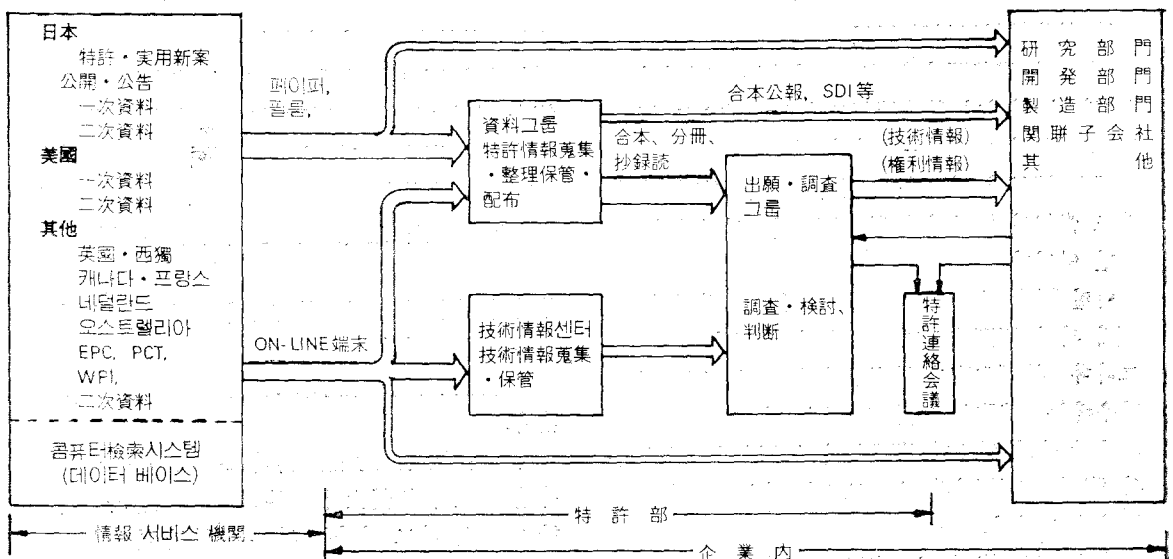
그런데 여기서 特許카드에 대해 紹介하기로 한다.

이 카드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 美國, 西獨의 特許에 대해 약 400萬件을 蓄積하고 있으며 카드에는 書誌의事項 이외에 클레임 및 또는 抄錄 그리고 代表的인 圖面이 記載되어 있다.

그리고 ① 出願人, ② 特許分類(IPC)와 (JPC)(기타), 및 番號로 檢索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差異가 있으나 1回 調査로 1,000건 내지 수천건의 카드를 抽出하고 그 후는 매뉴얼로 체크하고 있다.

일래 特許資料의 價値는 오랜 세월이 걸쳐 蓄積되며 檢索이 容易하고 情報內容의 密度가 높은 것 등에 의해 決定지어지는 것이지만 그같은 觀點으로도 이 特許카드는 同社의 特許調査에 있어서 貴重한 財産으로서 比重을 차지한다.

特許情報流通



3. 特許情報의 流通

다음 도표를 참조하면서 說明한다. 特許部 資料 그룹에 들어가는 資料의 一部分은 直接事業部나 研究開發部門에 配布된다.

그것은 合本公報, 抄錄 이의 事業部の 要求에 의한 SIP (Selected dissemination Information)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다. SDI 서비스는 현재 약 400테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들 情報는 주로 技術情報로서의 觀點에서 利用되는 것 같다.

그리고 事業部에서 이것을 체크한 결과 필요한 코멘트가 特許部에 피드백되어 오는 것은 當然하다.

다음에 資料 그룹에 받아들인 資料는 同時に 特許部の 出願, 調査 그룹에 配布되며 여기서는 주로 權利情報로서의 觀點에서 監視調査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事業部の 活動에 관련된 特許를 여기서 抽出하여 事業部에 送付하는 作業을 마치게 된다.

이것이 正規的인 一聯의 作業에 의한 特許情報의 흐름인데 이밖에 非正規的인 情報流通도 있다. 이를테면 事業부나 研究開發部門으로부터의 週及調査의 依頼에 대한 回答, 經營層으로부터의 問議에 대한 答申, 特定프로젝트를 위한 特許調査리스트의 配布 등이 그것이다.

4. 特許情報의 活用

1) 技術情報로서의 活用

研究, 開發部門이나 事業부에서는 充分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特許情報로서 正規적으로 活用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미 言及하였으나 그밖에 研究開發의 새로운 展開나 테마設定에 있어서도 當然히 週及해서 特許調査가 행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類의 調査도 研究 開發部門으로부터의 依頼에 의해 原則적으로 特許部가 受任하고 있다. 그러나 技術內容이 流動의이며 또한 廣範圍한 경우에는 特許部の 陣容의 限界만으로는 이에 副應할 수가 없으며 要求側의 技術者가 特許部の 資料를 利用해서 스스로 調査하는 케이스도 늘어나고 있다.

이 調査에 使用하는 資料로서는 컴퓨터의 ON

LINE, 特許카드, 1次 資料의 파일등 目的에 따라서 最適의 方法을 選擇해서 利用을 分別있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Patent-Mpa이나 龐大한 特許리스트등이 作成되는 수도 있으나 이것은 眞正 필요한 경우에 明確한 目的 意識下에 遂行되고 있다.

그밖에 特許異議申請이나 無効審判의 證據資料, 혹은 紛爭事件에 있어서 無効資料의 調査에 대해서 附言하면 特許公報관계의 調査는 特許部에 一般技術文獻 관계의 調査는 技術部門이 맡는 것이 대개의 경우이다. 그러나 當然한 것으로서 公知資料로서 公開公報가 占하는 比率이 증가하고 있다.

2) 權利情報로서의 活用

現業部門에서도 물론 權利調査는 하고 있지만 特許部에서도 상당량의 部分을 맡고 있다.

먼저 그 하나는 監視調査(CA)이다. 즉 特許部の 出願 調査그룹에서 最新의 特許公報를 체크하고 관련된 公報를 當該事業部에 回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事業부와 特許部와의 사이에 定期的으로 (每月 1日) “特許連絡會議”가 개최되며 여기서 문제가 되는 他社의 特許가 檢討되고 따라서 對應策에 대한 協議가 講究 論議된다.

이 「特許連絡會議」는 半導體, 電子管 關係를 對象으로 해서 1962년에 發足해서 그 후 점차 중요한 他技術分野에 있어서도 實施되어 지금은 20년간의 歷史를 背景으로 他社 特許問題檢討對策을 위한 重要한 制度로서 定着되어 있다.

다음에 週及調査(RS)에 관하여 言及한다.

新規로 事業을 展開하는 때 新製品의 企劃, 혹은 新製品의 發賣時에 特許의 週及調査가 필요한 것은 再言을 요치 않으나 現在는 事業部로부터의 依頼에 근거, 特許部가 調査를 맡는다.

3) 經營과 特許情報

特許情報를 度外視하고는 經營이 存在할 수 없다.

따라서 經營活動 全分野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類型의 經營上의 決定에 特許情報가 莫大한 役割을 하고 있다는 것은 嚴然한 事實이다. 同社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經營陣에 特許情報를

提供하고 方針의 決定에 關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하면 技術導入이나 技術提供(特許權實施契約, Cross License를 포함), 製品의 標準化, 新規事業의 展開 그리고 他社의 技術評價 등 등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特許情報에는 他社의 特許뿐만 아니라 自社의 權利狀況도 포함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위에 實態적으로 權利의 有効性이나 權利範圍 따위에 대해서는 判斷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말할나위 없다.

그러므로 同社에서는 지금으로서는 特許情報에서 出發하여 特許에 의해 動機가 賦與되는 그런 經營方針에까지는 構築되어 있지 않은 實情이어서 안타깝다. 諸般 狀況에 基礎해서 비로소 經營政策이 세워지고 特許정보는 거기에 對한 하나의 檢討機能의 역할로써 인식되는 것이 現實的이다 將來는 特許管理의 經營上 位置가 어떻게 發展하게 될런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이상과 같은 현실에 있다.

4) 全體像의 把握

特許管理의 第1步는 끊임 없는 自社의 發明에 接해서 될 수 있는대로 他社의 特許公報를 읽는 것이다. 이것은 特許를 職務로 하는 者의 基本姿勢로서 결코 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되는 作業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항상 自他의 技術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全體像을 捕捉할 수 있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時間과 費用을 들여서 作成된 龐大한 資料를 결코 손색없이 活用을 極大化하는 일이다. 이것을 어떻게 利用하느냐는 것은 그 當事者의 才質에 달려 있다.

5. 向後 課題

여기서 將來의 問題點을 줄 건드려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① 既述한 바와 같이 特許調査活動에 대해서도 特許部門에 떠이나 큰 負擔을 강요 받게되는 결과에 처해 있으나 이것은 企業活動의 規模로 보아서 이미 限界에 가깝다. 장래는 점차로 事業部에 넘겨야 하지 않을까 본다.

② 술직이 말해서 特許情報의 權利情報로서의 活用に 비해 技術情報로서의 活용은 充分하다고는 할 수 없다.

技術情報로서의 加一層의 活용을 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技術者가 積極적으로 特許公報를 읽는 것이 基本이며 技術者의 特許엘러지의 原因을 糾明해서 그것을 除去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 原因은 무엇보다 첫째 情報는 魅力이 따르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될 뿐만 아니라 技術說明의 構文이 쉬워야 함은 물론 用語 선택이 보편적이어야 할 것이다.

③ 特許情報量의 增大는 各方面에 問題를 던지고 있다. 企業內에서의 處理에도 스스로 限界가 있다. 企業中心의 技術에 관한 情報는 社內에서 處理한다 치더라도 廣範圍에 걸친 情報에 대해서는 社外의 資料나 데이터베이스를 퍼드록 많이 有効히 利用하는 일이 今後의 問題解釋의 열쇠라 본다.

④ 情報서비스의 코스트에 대해서도 充分히 留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情報서비스라는 것은 얼마든지 限界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充分하다고 본다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經費에 걸맞는 效果를 올리기 위해서는 明確한 目的意識과 豫算感覺이 緊要하다.

⑤ 情報서비스에는 根本的인 어려움이 內在하고 있다. 그것은 情報價値의 相對性이라는 것이다. 단 1行짜리 情報도 그것을 얻고자 바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千萬金의 가치가 있으나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者에게는 가령 수백페이지의 情報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雜音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필요한 情報를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는 것 즉, 情報서비스의 質에 뜻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상 제아무리 精密하고 緻密을 다해도 情報의 서비스에는 限界가 있다.

原始的으로는 情報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스스로 求한다. 最終적으로는 스스로 活字를 읽지 않으면 안된다 情報서비스는 情報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效果의으로 그 核心에 到達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